

# ‘의과대 중도 탈락’ 전남대·조선대 전국 1·2위

### 3년간 전남대 35명·조선대 32명...수도권 의대 쏠림·지방 기피 심화 수도권 고득점자, 지방의대 머물다가 반수·재수 통해 상위권 의대행

전남대와 조선대가 최근 3년새 전국 의과대학 중 중도탈락 학생이 가장 많은 학교 1위와 2위로 나타났다.

중도탈락 학생들은 대부분 재수 등을 통해 상위권 의대로 진학하고 있어 의대에서도 수도권 쏠림과 지방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광주일보와 종로학원이 전국 38개 의과대학의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2020~2022년)간 의대 지역별 중도 탈락자는 총 561명이었다. 전남대 중도탈락자가 3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선대는 32명으로 두번째였다. 한양대(32명), 원광대(29명), 연세대(미래)(28명) 등이

뒤를 이었다.

중도탈락은 자퇴, 미등록, 미복학, 유급, 학생활동, 학사경고, 수업연한 초과 등으로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

중도탈락자를 연도별로 보면 전남대는 2020년 8명에서 2022년 17명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조선대도 2020년 4명이었으나 2021년 16명까지 늘었다가 2022년 12명에 달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해당 수치가 공시된 202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대 중도탈락 학생의 사유를 보면 자퇴가 82.8%(29명)로 가장 많았고, 유급제적 8.5%

(3명) 순이었다. 미복학, 학사경고, 미등록 사유가 각각 1명씩이었다.

조선대도 자퇴가 90.6%(29명)로 가장 많았고, 2명이 유급제적을 하고 1명이 미복학했다.

전국적으로는 의대 중도 탈락자 총 561명 가운데 비수도권이 74.2%(416명)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탈락자 수가 가장 적은 대학은 연세대(1명), 성균관대(1명), 울산대(2명), 가톨릭대(5명) 등이었다. 탈락자가 적은 학교는 울산대를 제외하면 모두 서울 소재였다.

또 예과(2년) 때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88.9%로 가장 많았으며, 본과(4년)는 11.1%로 적다는 점으로 미뤄 상위권 의대 진학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방 의대에 지원했다가 반수나 재수를 선택해 수도권 의대에 다시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열악한 지역 의료 인프라에다 지방 인구

감소 등으로 병원 취업이 어렵고 개원하더라도 고전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여기에는 지방 의대의 선발 방식도 작용하고 있다.

대부분 지역에서 지방권 소재 의대의 지역인재전형은 수시에서 선발되지만, 정시에서는 전국 단위 선발의 비중이 68.6%로 매우 높아져 서울, 수도권 수능 고득점 학생들이 많이 합격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중도탈락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에서도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발생해 상위권 의대에 다시 도전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심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광주 동구, 차상위계층 대상

광주시 동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반려동물 유기 예방을 목표로 기획됐으며, 광주 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시행한다.

동구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취약계층 주민에게 반려동물 건강검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 의료비를 지원한다.

의료비가 30만원 이상일 경우 1인당 최대 27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가 30만원을 넘지 않으면 최대 90%까지 지원해 준다.

오는 28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동물병원 진료료 받은 뒤 본인이 부담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유연제 기자 yjyou@



화엄사 조실 명선 스님 다비식 지난 2일 조계종 19교구 지리산 화엄사의 조실 금성당 명선 대종사가 입적했다. 6일 다비식을 위해 연화대로 법구를 운구하고 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 ‘요양급여 거짓 청구’ 광주·전남 병원 5곳 공개

정부가 공개한 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한 전국 요양기관 20곳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병원 5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 청구금액이 해당 기관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곳의 명단을 6일 공개했다.

20곳 중 광주에서는 3곳, 전남에서는 2곳의 요양병원이 포함됐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은 6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광주 3곳의 요양기관 중 한곳은 병원에 오지 않아 진료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며 2억 2234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했고, 실제 투약하지 않은 약을 투약 한 것처럼 속여 1613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3년에 걸쳐 총 2억 3800여만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거

짓 청구해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와 업무정지 154일 처분을 받았다. 해당 기관은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 됐다.

2곳 중 한곳은 같은 이유로 147일의 업무정지 명령을 받았고 또 다른 한곳은 2억 8800여만원의 과징금 조처에 취해졌다. 2곳 모두 현재 폐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2곳의 요양기관은 목포와 광양의 요양기관으로 목포지역의 요양기관은 하지 않은 의료행위 비용을 청구해 업무정지 50일에 처해졌고 현재는 폐업했다.

광양의 요양기관은 비급여 대상을 진료하고 거짓으로 급여 비용을 이중 청구해 58일의 업무정지 조치에 취해졌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 GIST 신임 총장 공모 현직 교수 등 10명 지원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제9대 총장 공모에 모두 10명이 응모했다.

지스트는 “신임 총장 후보 공모를 마감한 결과 모두 10명이 응모했다”고 6일 밝혔다. 지스트 현직 교수 3명과 모 대학 총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50위권으로 분류되는 유명 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도 지원서를 냈다.

이들은 ‘총장후보발굴소위원회’가 총장 후보로 적합한 인사로 판단해 응모를 권유한 인사들이다. 지스트는 이번 총장 선임을 위해 처음으로 내·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총장후보발굴소위원회를 꾸렸다.

총장추천위원회는 오는 9일 지원자 서류심사를 통해 4배수 이상을 면접 대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다음주 중 면접을 한 뒤 2~3명으로 후보자

를 압축할 예정이다.

후보자 지원서 접수가 끝나면 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이사회에 후보자를 추천한다.

이사회에서 총장을 선임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교육부 장관 동의)을 받아 4년 임기를 시작한다.

한편, 8대 김기선 GIST 총장은 최근 이사회 결의(해임 의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직권으로 강제조정이 결정돼 오는 24일 자진 사임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시교육청 개방형 감사관 채용’ 감사원 감사 받는다

광주시교육청이 감사관 임용과 전직 제한 규정을 어긴 교원 인사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는다.

6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 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부터 2주 동안 시교육청이 지난해 8월 단행한 인사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이는 광주 교사노조의 감사 청구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감사원은 이 교육감 취임 후 처음 이뤄진 보직 인사와 개방형 감사관 채용과 관련한 논란을 조사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실시한 감사관 외부공모에서 이 교육감의 동창인 유병길 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관을 선임했다. 이 교육감과

유 감사관은 순천 매산고 26회 동기다.

당시 광주 교사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감사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교원 인사와 관련해 광주 교사노조 등이 제기한 1년 이내 교원 전직 제한 규정을 어긴 사항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기**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과 함께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자연과 만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  
**수목장**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수목장의 장점**

- ➔ 반영구적 사용가능
- ➔ 관리의 간소화
- ➔ 낮은 관리비
- ➔ 자연과의 동화
- ➔ 후손들의 부담 감소

※ 윤달 이장 상담 가능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메모리얼 가든**

24시간 연중무휴  
**☎ 062-464-3466**